SEOUL NATIONAL UNIVERSITY

Nursing Newsletter

October 2015. 가을호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소식지 / 발행인 **김성재** / 편집인 **박연환** / 편집조교 **황민화**

2015년 10월 8일 목요일(제10호)

2015학년도 Young Nightingale Camp

간호학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Young Nightingale Camp' 가 2015년 7월 23일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서 열렸다.

'Young Nightingale Camp' 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간호학을 탐구하고 직, 간접적으로 간호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간호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고취시키고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Young Nightingale Camp' 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이 주최하고, 간호 분야에 관심 있는 30명의 고등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전국에서 지원한 신청자 가운데 모의고사 성적과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간호학에 대한 관심과 소양을 갖추고 발전가능성이 엿보이는 학생들을 선발하였다.

참가자들은 김성재 학장의 환영 인사말을 시작으로 조성현 학과장의 'Welcome to Nursing' 라는 제목의 간호학에 대한 소개 강의를 들었다. 이후 올해 새롭게 신설된 조별활동인 '간호비전탐구' 시간을 통해 학생들이 그간 간호학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마음가짐 등을 돌아보며 예비 간호학도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갖추는 시간을 가졌다. 맛있는 식사와 함께 선배들과의 대화시간을 통해 간호학과 학생들의 대학생활을 엿볼 수 있었으며, '간호시뮬레이션' 시간을 통해 직접 간호를 체험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이후 조별로 나뉘어서 간호학박물관과 샤인센터를 비롯한 간호대학 내 주요시설을 둘러보았으며, 박연환 부학장의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 설명회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오전에 있었던 조별활동 발표회 및 수료증 수여식을 끝으로 'Young Nightingale Camp'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02 간호대학 소식 16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18 학부소식 22 대학원 소식 26 동창회 소식 28 간호대학 발전기금

간호대학 소식 01

교수동정 박현애 교수 : 미국 미네소타대학 동문 기조강연 및 우수학자상 수상, 세계의료정보학회 회장 취임

박현애 교수가 지난 4월 29일 미국 미네소타 대학 동창회관에서 개최된 보건의료정보학과 대학원 프로그램 개설 50주년 기념행사에서 동문을 대표하여 기조강연을 하였다. 박현애 교수는 1964년에 개설된 이 프로그램에 1984년 입학하여 1986년에 석사학위, 1987년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기조 강연에 이어 박현애 교수는 이 대학에서 2012년부터 매년 보건의료정보학 발전에 기여한 국내외 우수 학자를 1명 선발하여 수여하는 "The Lael Granmer Gatewood Distinguished Lectureship" 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박현애 교수는 2015년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개최된 2015년 세계의료정보학회 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제 16대 세계의료정보학회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세계의료정보학회는 전 세계 보건의료분야에서 정보기술 활용을 다루는 보건의료-전산-정보학 전문가들이 1967년에 설립한 학회로 현재 아태, 유럽, 북미, 남미, 아프리카, 중동 등 6개 대륙회원 산하 62개 국가가 정식회원, 31개 국가가 준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박 교수의 회장 취임은 여성으로 세 번째, 아시아권에서도 세 번째 있는 경사로 임기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년이다. 임기 중 학회 창립 50주년이 되는 2017년에 중국 북경에서 국제학술대회인 Medinfo 2017을 개최할 예정이다.

박 교수는 임기 중 새로운 회원국 영입, 기존 회원국의 새로운 전문가 영입 등 학회의 양적 발전 뿐 아니라, 학회 내 회원 간, 학생과 연구자간, 학계와 업체간, 타 기관의 관련 전문가들과의 교류의 장을 열어 학회의 질적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교수는 2006년부터 세계의료정보학회 부회장, 2012년부터 세계간호정보학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세계표준기구(ISO), 세계보건의료용어표준개발기구(IHTSDO) 등에서 보건의료정보분야 전문가로 활동한 바 있다.

〈우수학자상 수상〉

〈세계의료정보학회장 취임〉

간호대학 소식 01

교수동정 윤순녕, 이인숙 교수 : 2015 서울 지역사회간호학회 국제학술대회 조직위원장

The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munity Health Nursing Research (ICCHNR)

윤순녕 교수와 이인숙 교수는 2015 서울 지역사회간호학회 국제학술대회 조직위원장으로 8월 19일~21일까지 3일간 서울대학교 문화관에서 성황리에 국제학술행사를 집행하였다.

2015 서울 지역사회간호학회 국제학술대회는 한국의 '지역사회간호학회' 와 영국의 '세계협력 지역사회간호연구 (ICCHNR)' 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ICCHNR (현재 회장: Fiona Ross 교수, 의장: Sally Kendall 교수, Rosamund Bryar 교수) 은 지역사회간호학 연구자들의 모임으로 1993년 에드먼턴, 앨버타에서 성공적인 학술모임을 개최한 후에 이 성과를 토대로 1995년 영국에 본부를 두고 설립된 학술 회원 단체이다.

ICCHNR은 비영리 학술단체로써 그 목적은

-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 지역사회간호연구의 가치를 입증하고
-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간호실무의 지식을 발전시키고 공유하며
- 근거기반실무로의 지역사회간호사들의 개인적 책임감을 높이고
- 지역사회간호사를 위한 연구의 적절한 사용을 장려하고
- 건강한 공공정책들과 연대하여 지역사회간호의 사회적 공헌에 대한 인식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

또한 ICCHNR은 국제학술대회와 국제적 연결망을 통한 기금모금 활동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지역사회간호학 발전을 돕는 데에도 헌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 건강실천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학술적 활동과 개발도상국가의 학자를 지원하는 숭고한 목적을 실천하는 학회 활동은 주로 4년마다 영연방국가를 중심으로 개최해왔으며, 2015년에 개최된 제6차 학술대회는 2005년에 일본에서 개최한 이후 영연방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개최하는 두 번째 학술대회였다.

본 학술대회의 주제는 'Knowledge translation into community health nursing: Health Promotion across the Lifespan' 로 지식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간호실무의 도약을 꾀하고, 세계 학자들 간의 협력과 네트워크 장을 제공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해 가는 핵심에 한국 지역사회간호학회가 있음을 충분히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본 학술대회는 총 20개국 789명의 학자 및 학생들이 등록하여 3일간 초청 연자 강연, 구두발표, 포스터 발표 및 현장방문교육이 실시되었다. 국내에서도 회원 8,435명의 12개 지역사회간호 관련 학회 혹은 협회(가정간호사회, 보건간호사회, 보건교사회, 보건진료소장회, 한국산업간호협회, 다문화건강학회, 지역사회간호학회, 한국가정간호학회, 한국농촌간호학회, 한국방문건강관리학회, 한국보건간호학회,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의 실무자 및 학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식 나눔과 연구결과 공유를 통한 현장실무의 질적 강화는 물론 간호학자 및 연구자 간의 결집을 다지는 지역사회 간호인의 학술 축제였다. 또한 학문 후속세대인 간호대학 및 간호대학 및 대학원 80명의 학생들이 행사진행을 돕는 서포터즈로 활동하여 간호학술모임의 분위기를 이해하고 경험하며 간호계의 일원임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서울대학교 성낙인 총장과 본교 졸업생인 김화중 전 보건복지부 장관(67졸)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으며, 졸업생인 University of Pennsylvania (U.S.A) 임은옥 교수(89졸)가 기조연설을 하였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의 훌륭한 국악연주를 통해 한국의 아름다운 선율을 선보이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대학교 문화관, 멀티미디어 교육동과 같은 훌륭한 제반 시설의 지원과 조직위원회 및 학부, 대학원생의 활동을 통해 서울대학교가 가진 우수한 학술적 역량 이외에도 국제학술대회를 성대히 치르는 다방면의 역량이 드러났으며, 이를 통해 국내는 물론 세계 지역사회 간호학계를 결집하게 한 훌륭한 행사였다.

간호대학 소식 01

교수동정 송미순 교수 : 미국 간호학술원 회원(FAAN) 선정

송미순 교수가 올해 미국간호학술원(American Academy of Nursing)의 회원으로 선정되었다. 미국간호학술원은 1973년에 설립되어 현재 미국 Washington DC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 이 회원이 되는 것은 간호학계에서는 최고의 명예로 생각된다. 미국간호학술원은 간호 분야의 교육, 관리 실무, 연구 분야의 리더를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하여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2,200명 정도의 회원이 선정되었다.

송미순 교수는 지역사회거주 만성질환 노인들을 위한 자기관리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와 지역사회 봉사를 중요 업적으로 인정받았다. 송 교수는 연구과정에 Action Research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이론적으로 개발한 서비스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하고 이 결과에 따라 서비스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다시 적용하는 것을 반복하여 대상자요구에 부응하는 효과적인 중재를 찾아가는 방법이다. 이 연구전략은 일반적인 건강관련 연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생리적인 효과 외에도 대상자의 반응과 만족을 중요한 결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차별화 된다. 송 교수는 지난 16년간 대학원 학생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인복지관과 보건소에서 당뇨병이 있는 노인들을 위한 자기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고 이 과정에서 50여 편의 연구결과들을 국제적 및 국내 저명학술지에 발표하였다.

올해 10월 15일-17일 Washington DC에서 열리는 미국간호학술원 정기총회에서 입회식이 있을 예정이며 이후 'FAAN (Fellow of American Academy of Nursing)' 의 칭호를 사용하게 된다. 송미순 교수는 1985년 이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 재직 중이며 간호대학 학장, 노인간호학회 회장, 한국노년학회 회장, 시그마학회 한국지부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간호대학 소식 01

교수동정 윤순녕 교수 정년퇴임

2016년 2월 우리대학 윤순녕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여 특집 인터뷰를 기획하였다. 42년의 시간동안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 몸 담으셨던 그간의 소회와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들어보고자 한다. 인터뷰에는 간호대학 2학년 학부생인 박조아, 윤현경, 이찬희 학생이 수고해주었다.

윤순녕 교수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 학력

인일여자고등학교 졸업(1969)
서울대 간호학과 졸업(1973)
서울대 보건학석사(1976)
서울대 간호학박사(1991)
미국 UCSF 간호대학 지역사회간호학과정 연수(1987.9 – 1988.8)
미국 위스콘신 밀워키대 간호대학 지역사회간호센터 실무연수(2000.7 – 2001.2)

• 주요 경력

1993 – 1997	한국산업간호학회 회장
1998 – 2002	한국산업간호협회 회장
2001	석탑산업훈장 수상
2001 – 2003	대한간호협회 부회장
2003 – 2004	한국가정간호학회장
2003 – 2005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간호사시험위원장
2003 – 2006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간호사 외국대학 인정심의위원회 위원장
2003 – 2009	대한간호정우회 회장
2004 – 2005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회장
2007 – 2009	서울대 간호대학 학장
2008 – 2011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이사
2012 – 2014	한국간호평가원평가인증위원회 위원장

1. 30년이 넘는 시간동안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계신데, 특별히 지역사회간호학을 전공으로 선택하게 되신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내가 1973년도에 졸업을 했으니 간호학과를 졸업한지 40년이 넘었네요. 학부시절 지역사회간호학을 배웠었는데 당시 간호대학에는 지역사회간호학 전공이 없었고 바로 옆에 있었던 보건대학원에는 지역사회간호학 전공이 있었어요. 그 때 이경식 교수, 김화중 교수, 이선자 교수 세 분이 지역사회간호학 교수로 보건대학원에 계셨었죠. 학부 때와는 다른 좀 더 새로운 분야를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지역사회간호학이 새로운 분야일 것이라는 생각에 보건대학원으로 진학하여 이 분야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2.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오셨는데, 그 중에서도 인상 깊었던 것이 대한 간호정우회 회장을 무려 3번이나 역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대한간호정우회 회장직을 지내오시면서 특별히 애쓰셨던 활동은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정우회는 우리 서울대 출신 선배님들이 기초를 다지신 조직이에요. 당시 대한간호협회 회장이셨던 박정호 교수님께서 간호계에서 정치적인 역량의 필요성을 절감하셨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 독립된 기구인 대한간호정우회가 설립되었어요.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셨던 김화중 교수님이 제 2대 회장을 지내셨고, 보건대학원 재학시절 저의 지도교수님이시기도 해서 부회장을 몇 년 지내다보니 정우회 회장까지 하게 되었어요.

내가 강의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 사업을 추진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해요. 의회를 통해 법제화가 되면 해당 중앙부처에서 실제적인 행정정책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 국회에서 예산도 받을 수 있게 되죠. 간호계에도 국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대변자가 되어주지 않겠냐는 생각에 의료인의 대표성을 가지고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회비도 내고, 지명도를 높여 공천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정우회장을 지내면서 보니까 간호사로서 나이 들어서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학생 때부터 어떻게 우리 대상자들을 옹호해야하는지 정치의식을 일깨우고 그 사람들을 좀 더 큰 사람으로 키워야겠다는 생각에 그런 사업들에 힘쓰게 되었죠. 간호계가 주로 여성들이 많은 직업이다 보니 정치적 역량이 약한 게 사실이에요. 대한간호정우회 회장을 하면서 젊은 간호 정치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 조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애를 많이 썼어요. 선배들이 낸 회비를 가지고 정치에 대해 배우고 연자를 모셔다가 정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강

연을 듣게 해주는 등의 활동들을 통해 하나의 무브먼트를 만드는 거죠. 전국단위 선거 때는 지지도 해주고 간호조직을 동원하여 돕는 그런 활동들을 주로 했었어요.

3. 간호대학 학장 재임 시절,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1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셨는데 그 누구보다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당시 학장을 했다고 해서 자부심이 크다고 하기 보다는 100년 동안 이 역사를 계승해 온 우리 선배님들의 노고가 대단하죠. 1954년에 졸업하신 세계기독간호사회 회장 이송희 선배님이 계시는데 세계기독간호사회를 설립하고 기독신앙이 있는 간호사들에게 기부를 받아 캄보디아에 학교를 세우셨어요. 연변과기대는 물론 퇴직한 간호사들을 파송하는 일을 하시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계세요. 또 100주년 기념행사를 할 때 지금 간호대학 앞뜰에 있는 '간호가 여는 건강한 미래' 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울 때 박정호 교수님, 이은옥 교수님을 비롯한 1회 졸업생 선배님들이 흔쾌히 기부금을 내놓으시면서 힘이 되어 주셨어요. 그렇게 100주년을 자랑스러워하는 많은 선배들이 계시고 이 학교를 계승, 발전시키는 데에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 선배님들의 노력이 오늘 우리 대학의 발전을 가져왔다는 것이 저의 자부심인 거죠.

우리 간호대학이 나아가야하는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선도적인 역할!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후학들은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인문학적 소양, 인간의 기본적인 소양을 바탕으로 뛰어난 분석력과 논리성과 박애주의 등에 입각해서 현장에서의 문제를 연구하여 새로운 지식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직업만 잘 가지려고, 취업만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이라는 세계에서 근거가 있는 지식체를 발견하고 발굴해내며 정립해가는 것이 진정한 연구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 우리 간호대학이 나아가야할 방향은 간호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체 개발을 위해 연구하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4. 지난여름, 간호대학에서 초중등 1급 보건교사 자격연수가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20년 동안 담당해오셨다고 들었는데 그간의 소회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전에는 보건교사가 케어서비스도 제공하고 수업도 진행하는데 승진의 기회가 없었어요. 보건교사에게도 교육자로서 승진의 기회를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1967년 학교보건법이 제정된 이래로 1996년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보건교사 중에 3년제 출신도 있고 급수가 따로 정해진 것이 없고 단독 교과목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승진의 기회가 막혀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대학과 보건교사회가 협동하여 법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해나갔어요.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셨던 김화중 교수님과 함께 보건교사가 하는 일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법제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1996년 1급 보건교사 자격 연수 과정을 만들어 180시간의 직무교육시간을 포함한 커리큘럼을 짜고 그들의 능력이 얼마나 신장되었는지 보여주는 증거들을 보였어요. 전국에 7~8,000여명의 보건교사 가운데 우리대학의 연수과정에서 지금까지 2,800여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어요. 경력이 있는 유능한 보건교사들은 장학사 등 전문직으로 나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 매우 고마워하

고, 우리 또한 그들이 더욱 능력을 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던 거죠. 앞서 이야기한 정우회 활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떤 개인이 이러한 일들을 해오면서 발전시켰다기보다 학교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사회적인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여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역할들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5. 교수님께 있어서 '간호' 란 어떤 의미인가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간호학의 매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간호란 인간의 건강, 인간의 생활에 대해 생각하는 학문이에요. 아픈 사람, 아픈 사회에 대해 같이 아파하면서 이를 해결해나가는 학문인거죠. 남을 배려하고 돌보려는 선한 양심이 있는 학문이라는 것이 간호학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간호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은 우리가 바꿔나가야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설득하고 이를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6. 마지막으로 간호의 길을 먼저 걸어오신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간호대학에 들어온 것은 정말 잘한 인생의 선택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이 세상을 살아간 뒤에 남는 것이 무엇일까, 부나 명예 이런 것들인가" 하고 생각해봤을 때 결국은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학부를 졸업하게 되면 면허를 가지게 되는데 나는 그 당시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을 하고 혼자쓰기에 풍족한 월급으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놀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동안 뭐가 남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그것으로도 충족이 안 되어 4년의 임상경력을 바탕으로 조교로 일하다가 지금까지 교수로 남아 있게 되었어요.

한 길을 가다가 그 길이 끝나면 다음 길이 보이는데, 끊임없이 그 길을 좋아하고 추구하다보면 결실을 맺게 되요. 특히 그 과정에서 좋은 동료들을 만나면 더 가속화되고 쉬워지게 되죠. 그래서 인간관계도 정말 중요해요. 있는 문제를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희망으로 싸서 여러 가지 관계망을 확인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다 보면 나 하나의 만족에 그치지 않고 전체 다수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결국 결실을 맺는 것이자, 나이를 들어가는 것이겠죠.

이 학과를 잘 선택했고, 나라와 민족, 인종을 초월해서 일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졌으니 우리 후배들이 인류애를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어요. 결국 이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리가 아니겠어요? 간호대학이라는 모티브를 딛고 끊임없이 성취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후배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간호대학 소식 01

교수동정 신임교수 소개 : 탁성희 교수

저는 1992년 여름 박사과정유학을 위해 고국을 떠나 미국에서 살다가, 23년 만에 귀국하여 연건캠퍼스에 돌아왔습니다. 미국에서 노인건강간호 분야로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박사학위를 마쳤고, 1998년부터는 17년간 여러 미국주립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였었습니다. 귀국하기 직전에 있었던 테네시 주 멤피스대학에서는 석좌교수 및 연구부학장를 겸임하면서, 간호대학내의 연구 활동 촉진, 간호연구에 관련된 행정담당 및 교육 강화의 책임을 맡았었습니다. 또한, 센터장으로서 다 학제 간 치매관련 공동연구 활성화, 지역사회와 협력증진, 노인건강증진 정책반영에 주력하였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건강간호를 위한 테크놀로지 응용, 환자중심 맞춤간호중재, 치매노인간호 분야 등에서 연구 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동안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지만, 학부시절, 간호사시절 그리고 석사시절에 누비고 다녔던 연건캠퍼스는, 고향처럼 편안하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잊고 지내던 스승님과 선배님들 그리고 소식이 뜸했던 친구와 후배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올 가을학기에 맡은 첫 교과목강의인 3학년 노인건강간호학 수업에 들어갔을 때는, 학생들의 나이가 제 딸아이와 똑같은 것을 알게 되어 큰 감회와 동시에 제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옛날에 학부시절 홍여신 명예 교수님의 Wellness강의를 감명 깊게 들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앞으로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이 간호에 대한 안목이 넓어지고, 어떤 선택을 하든지 열정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간호인으로서 성장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도록 힘쓰고자 합니다.

간호대학 소식 02

연구실 탐방 영유아 건강간호 연구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영유아 건강간호 연구실은 아동간호학 전공의 방경숙 교수가 이끄는 연구실이다. 아동간호학에도 여러 분야가 있으나 특히 영유아 발달과 건강증진, 이를 위한 부모교육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대학원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1월에는 호주의 University of Technology in Sydney의 Fowler 교수를 모셔 모아상호작용을 관찰, 평가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인 NCAST(Nursing Child Assessment Satellite Training) 교육과정을 개최하여 여러 대학원생이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이 분야의 연구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영유아 건강간호 연구실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크게 두 가지를 소개할 수 있다.

첫째는 KOICA의 지원 하에 이루어진 에티오피아 모자보건 역량강화 사업으로, 올해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부천대학교로 부임한 강현주, 그리고 유주연, 박지선, 김형경 대학원생이 같이 참여하여 2년 반 동안의 큰 프로젝트를 작년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으며, 글로벌 간호를 위한 새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미숙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 환경적 위험요인을 분석하는 연구이다.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하에 2011년 5월에 시작된 5년 프로젝트로 아직 미숙아 발달에 대한 종단연구가 매우 미흡한 상황에서, 간호중재를 통해 변화 가능한 요인을 찾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외에도 간호대학의 다른 전공 교수들과 공동연구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산림청 과제 지원 하에 지역사회간호학 전공의 이인숙 교수가 세부과제 책임을 맡고 있으며 정신간호학 전공의 김성재 학장, 최희승 교수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산림치유 관련 연구이다. 영유아 건강간호 연구실에서는 특히 아동에 대한 산림치유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학령기 아동에 대한 산림치유 중재의 효과 검정 및 확산 전략 마련 등에 대한 부분을 맡고 있으며, 공동 작업을 통해 영유아 건강간호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영유아 건강간호 연구실에는 현재 박사과정생으로 유주연, 박지선, 황인주, 류혜란, 배애라노 아이비, 송민경, 이부현, 박지윤 학생이, 석박통합과정생으로 하가희, 정예슬, 박세은, 신다애 학생이, 석사과정생으로 문나리, 황유민 학생이 수학하고 있다.

또한 대학원생들의 스터디모임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2015년에는 간호과학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체계적 문헌고찰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공통 관심사 주제를 정해 공동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학술모임을 통해 정규 대학원 과목 이외에도 서로에게 지적 자극을 주기도하고 모르는 것을 새롭게 배우기도 하면서 전반적인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구실에서 보내는 바쁜 생활을 뒤로 하고 지난 5월에는 춘천의 김유정역 근처 금병산으로 나들이를 가서 즐거운 한 때를 보내며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연말에는 졸업생들도 같이 모여 봄, 겨울의 정기적인 모임을 갖기로 하였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은 앞으로도 좋은 인맥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영유아건강간호 연구실 모임〉

〈2015년 5월 춘천 나들이〉

간호대학 소식 03

행복한 나눔 강신자, 故 최애옥 동문

2015년 5월 21일 우리대학에 거액의 발전기금을 기부한 강신자 동문(63졸)의 부조제막식이 있었고, 6월 28일에는 故 최애옥 동문(50졸)의 기념식수행사가 거행되었다.

우리대학 제 1회 졸업생인 강신자 동문은 미국에 거주하면서도 모교를 향한 뜨거운 애정을 담아 총 1억이 넘는 금액을 간호대학 발전기금으로 기부하였다. 부조제막식을 축하하기 위해 이은옥, 박정호 명예교수를 비롯한 제 1회 졸업생들이 함께 참석하여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2014년 11월 미국 시카고에서 별세한 故 최애옥 동문은 1950년 우리대학을 졸업하였으며, 생전에 근검절약해 모은 재산을 모교에 기부하겠다는 유언을 남겼다. 故 최애옥 동문의 유족은 모교에 '최애옥 장학기금' 1억원을 기부하였으며, 고인의 뜻을 기리어 간호대학 본관 앞뜰에서 기념식수 행사를 거행하였다. 우리대학 교수로 재직했던 故 최애옥 동문은 1967년 미국으로 건너가 시카고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바 있다.

간호대학 소식 04

국제교류 – 교수교류 이남주 교수 :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방문교수 연수

이남주 교수(간호관리학 전공)는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간호대학에서 방문교수로 지내고 돌아왔다. 이남주 교수를 모시고 연구년 동안의 생활에 대해 들어보았다.

연구년 동안 멘토 교수인 Dr. Laura Wagner와 간호사의 환자안전 역량증진을 통한 환자안전 향상방안에 대해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번 연구년 동안 저는 Dr. Laura와 저의 공통된 연구 관심분야인 '환자안전역량과 교육' 과 관련된 연구를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공동 진행하였습니다. 첫째로는 간호학생, 간호교수의 환자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방안과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로서, 미국의 사례를 비교해보며 한국의 교육현장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고 논의하였습니다. 둘째로는 한국의 노인요양시설의 환자안전 문화에 대한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들의 인식을 조사, 분석하고 미국의 국가적 자료와도 비교해 볼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위 두 가지 연구 외에도 실제 환자안전과 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요양시설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미국의 장기요양시설의 질과 환자안전 정책과 제도를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San Diego에서 열린 Quality and Safety Education for Nurses Conference에 참석해 한국의 간호대학에 환자안전 교육과정을 적용한 연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환자 안전 교육 과정을 세계 간호 연구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다른 나라의 석학들과도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이러한 연구 및 교류를 통해 연구자와 교육자로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다른 문화 및 교육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가족들과도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가족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더욱 보람찬 연구년이 되었습니다.

간호대학 소식 04

국제교류 – 학생교류 2015학년도 하계 단기연수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학부학생 임수진, 손소현, 양진주, 조은애, 채유정, 최서현, 이지연, 곽문정 이상 총 8명은 2015년 6월 27일부터 7월 26일까지 약 4주간 미국 일리노이 주의 시카고에 위치한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UIC)에 하계 단기 연수를 다녀왔다. 이들은 총 한달 간의 연수 일정 중 처음 2주 동안 간호연구방법(Nursing research method)에 관한 수업을 Team-based learning(TBL) 형식으로 받았고, 2주간 University of Illinois Medical Center에서 임상 실습 견학을 하였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과 UIC는 2012년 협약을 맺어 학술교류를 시작하였으며, 매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국제협력본부의 지원으로 하계 단기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UIC 단기연수의 경우, 국제협력본부로부터 학생 1인당 180만원의 지원을 받았다.

9월 1일(화)와 9월 2일(수)에는 각각 연건과 관악캠퍼스에서 국제교류 보고회를 개최하여 교육연수를 다녀온 학생들이 선후배 및 동기들과 연수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간호대학 소식 04

국제교류 – 2015학년도 하계 해외단기연수 수기

2015학년도 서울대학교 UIC 연수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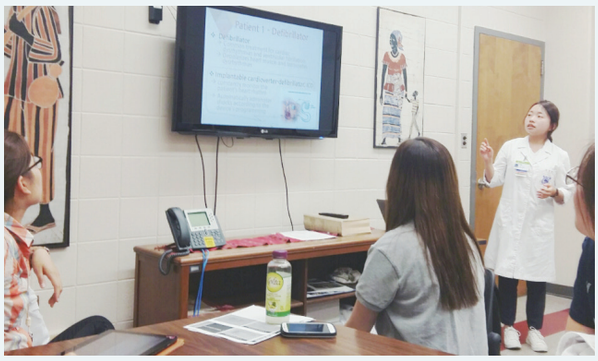
함께 해외연수를 다녀올 8명의 팀원이 정해진 후, 여러 가지 서류들을 제출하며 해외연수를 준비하였습니다. 바쁜 학기 중에 준비할 것들이 많아 분주하였지만 한 달 간의 연수 기간은 유익할 뿐 아니라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6월 27일 토요일 아침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시카고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부터 갑작스레 영어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낯설었지만 친구들이 함께 있어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시내에 들어선 후 보이는 시카고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시카고의 상징인 밀레니엄 파크에 있는 클라우드 게이트도 보고 크라운 분수도 볼 수 있어 매우 신기했습니다. 한달 간 숙소로 생활하게 된 8인실 호스텔은 8인실이라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여러 국적의 외국인들과 당구대와 탁구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어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주말 동안 시카고 시내를 간단히 구경한 후 월요일부터 바로 등교하였습니다. 학교에 가기 위해서 8명의 팀원이 함께 호스텔에서 제공되는 조식을 먹고, 지하철을 타고 학교가 있는 Polk역에 내렸습니다. 잠시 걸어가면 나오는 간호대학 건물에서, 9시부터 점심시간인 11시 전까지 그날 수업에서 다룰 교재의 해당 범위를 각자 정독하였습니다. 각자 구입한 간호 연구 교재를 읽어야 했는데 첫 날은 영어로 된 글을 읽으니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진행된 오후 수업에서는 교수님께서 주신 시험지를 각자 푼 후, 같은 문제를 팀 별로 함께 풀었습니다. 일본에서 온 학생들과 브라질에서 온 한 학생이 고루 섞인 3개의 팀이 있었고, 영어를 사용하여 토론을 하였습니다. 의견이 서로 다를 때면 교재에서 읽은 부분을 근거로 서로를 설득하며 답을 찾아갔습니다. 팀 별로 문제를 풀었을 때에는 개인별로 한 것보다 항상 훌륭한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단순히 더 많은 답을 맞추었다는 것 이상으로, 다른 학생들의 사고방식을 수용하면서 자신의 편견을 발견하고 수정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팀 별 토론이 끝나면 교수님께서 각 팀에서 어려워했던 문제를 위주로 설명해주시고, 역시 토론으로 이루어진 적용 활동을 하였습니다. 시험지의 문제를 푸는 것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고 깊은 생각을 요구하는 적용 활동이었지만, 교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며 토론하다 보니, 더 나은 답을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들께로부터 일방적으로 수업을 듣는다면 매우 어렵고 지루한 수업이었겠지만,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고 깨달아가는 과

정은 정말 흥미롭고 유익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국적을 넘어서 깊은 우정을 쌓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같은 호스텔에서 머무르는 일본 학생들과는 수차례 서로 음식을 대접하는 식사모임을 가졌습니다. 독립기념일 밤에는 함께 불꽃놀이를 보러 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브라질 학생이 포함되어있던 한 팀은 브라질 친구를 호스텔로 초대하여 서툰 한국음식을 대접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오후 4시쯤 학교 수업이 끝나면, 본격적인 시카고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몸은 피곤하였지만 아쉬운 마음에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시카고 시내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느 주말에는 시카고 지역에서 일하시는 선배님들로 이루어진 동문회에서 한 선배님의 댁으로 저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함께 멋진 공원을 산책하고, 풍성히 차려 주신 한국음식을 먹고, 또 거실에 모여 앉아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국에 비하여 어려운 점이 많은 한국 간호사의 실정을 우리가 직접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진지한 이야기뿐 아니라, 사적인 재미있는 이야기도 함께 하였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호스텔까지 저희를 직접 데려다 주셔서 즐겁고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편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2주간의 연구 수업이 끝난 후에는 UIC 병원에서의 실습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일본, 그리고 스페인 학생들이 총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매일 다른 병동을 실습하였습니다. 한 그룹에 3~4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학생 한 명 당 간호사 한 분이 배정되어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담당 간호사분을 shadowing 하였습니다. 그 분의 모든 일과를 옆에서 지켜보고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하고 한국과 미국 간호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보다 생생하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수기간을 통해 미국 간호사와 한국 간호사의 차이점을 매우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미국 간호사의 업무 환경 중 좋다고 생각된 점은 처음 병원에 입사할 때 day, evening 혹은 night 중 원하는 duty를 정하여서 항상 같은 duty를 하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보다 일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할 수 있어 간호사의 삶의 질이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간호사의 경우 하루에 평균 4~5명의 환자를 보고 간호사 2명당 한 명의 간호보조인력이 많은 양의 업무를 도와주어 서류와 투약 간호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에 비해 업무가 적다 보니 환자와의 교류가 굉장히 많았고 환자의 간호 만족도도 매우 높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간호의 단점으로는 한국에 비해 간호사들의 업무 처리 속도가 느리고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주관적으로 보았을 때 위생에 대한 처리가 조금은 미흡하게 느껴졌다는 점 등이 있었습니다.

연수기간 동안 느낀 미국 간호사와 한국 간호사의 차이점은 사소하게는 사용하는 의료물품부터 크게는 간호사의 업무까지 매우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장점이든 한국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도입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료와 관련하여 국가의 건강보험체계부터 병원의 의료 시스템까지 여러 부분에서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의 간호를 한국 간호가 나아가야 할 이상향으로 설정하되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UIC 단기연수는 간호에 대한 생각의 폭을 넓혀주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한국 간호사들이 진출해야 할 세계적인 연구 수준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앞으로 한국의 간호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UIC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교류가 지속되었으면 좋겠고 더 많은 학생들이 이와 같은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기원합니다.

간호대학 소식 05

간호대학-서울대학교병원 간호부문 교류

1. 2015년 간호대학-간호부문 학생실습간담회

4월 13일 간호대학 제2연구동 강당에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서울대학교병원 간호부문 학생실습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실습교육에서의 시뮬레이션과 소그룹 학습법 활용' 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학생실습간담회는 김성재 학장과 송경자 간호본부장의 인사로 시작하여 서은영 교수의 '학부 실습교육에서의 시뮬레이션 활용 현황' 에 대한 발표로 이어졌다. 이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승희 교수의 '효과적인 소그룹 학습법과 facilitating기법' 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전공별 토의에서는 각 실습 교과목의 담당 교수 및 실습 병동의 수간호사와 임상실습 프리셉터가 함께 모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습 교과목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2. 2015년 취업대비 역량강화 프로그램

2015년 6월 25일 서울대학교병원 간호부문과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은 간호대학 제2연구동 강당에서 간호대학 4학년 학부생 및 졸업예정자 중 취업예정자 53명을 대상으로 취업대비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최은하 서울대학교병원 간호행정파트장을 모시고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병원면접의 진행방식과 준비사항에 대한 강의와 함께 실전 면접에서 유용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3. 2015학년도 제 2차 간호부문-간호대학 협의회

2015년 8월 27일 함춘원에서 서울대학교병원 간호부문과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협의회가 있었다. 송경자 간호본부장의 개회로 시작하여 간호부문과 간호대학에서 지난 학기 활동을 차례로 보고하였다. 2학기에 있을 양 기관의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에 상호 협력을 약속하며 간호부문과 간호대학의 발전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호대학 소식 06

2015학년도 하계 교수 Workshop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2015학년도 간호대학 교수 하계 워크숍이 서울대학교 간호대학과 경상남도 남해 일대에서 개최되었다. 간호대학 교수 19명과 조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육/연구 역량 증진 및 국제화 전략' 을 주제로 김성재 학장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조성현 학과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오전에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미래실천위원회 총괄간사인 김성철 교수를 모시고 '서울대학교 교육/연구 발전 방향' 에 대한 발표를 듣고 다양한 질의응답과 논의를 벌였다. 이후 박연환 부학장의 '간호대학 교육 현황 및 쟁점' 발표가 이어졌고 간호대학 교육역량 증진 방안에 대해 고민하며 토의를 진행하였다.

오후에는 '간호대학 연구 현황 및 쟁점' 에 대해 방경숙 기획위원장이 발표를 하고 간호대학의 연구 역량 증진을 위해 승진 기준의 적절성과 업적 평가의 타당성 및 연구 증진 전략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최희승 국제교류위원장의 '간호대학 국제교류협력 현황 및 쟁점' 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고 간호대학 국제교류의 목적과 방향을 재설정하고, 국제간호 관련 학부 교과목 개발에 대한 교수들의 생각을 들으며 국제교류위원회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18일부터 19일까지는 경상남도 남해로 떠나 독일마을, 원예예술촌, 다랭이마을 등을 둘러보면서 간호대학 교수들의 단합과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으며,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역량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간호대학 소식 07

2015년 하계 초 · 중등 1급 보건교사 자격연수

2015년 하계 초·중등 1급 보건교사 자격연수가 7월 27일(월)부터 8월 7일(금)까지 실시되었다. 1996년 첫 번째 연수를 시작으로 올해로 20회가 되었고 전국의 보건교사 중 2,800여명이 1급 자격연수를 본 대학에서 받았다.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전국 11개 지역에서 온 121명의 초·중등 보건교사들은 첫 주(30시간)동안 관악캠퍼스 사범대학에서 기본소양 및 교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를 받았다. 나머지 2주(60시간)는 연건캠퍼스 간호대학에서 1급 보건교사로서의 교과 지도와 교육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를 받았다.

교육 실시 전 서울과 경기도교육청의 장학사들과 학교보건을 둘러싼 교육현장의 중요 이슈나 변화들을 살펴보고 지난해 연수과정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올해의 교육과정을 수립하였다. 특히 보건과 전공과정은 첫날 학교보건교육의 정책방향, 보건교사의 현재와 미래, 학교보건의 이해와 방향을 필두로 하여 보건교사로서의 핵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커리큘럼을 강의와 실기실습의 방법으로 운영되었다. 18개의 전공과목 중 보건수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과목인 효과적인 수업의 실제, 보건수업의 기법, 보건과 교수학습자료 제작 등은 연수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끝으로 학교현장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교육 주제 선정, 학습목표 설정, 대상자에게 적합한 교육 내용, 방법과 매체 선택, 평가계획 작성 후 보건교육을 실제로 시연하고 평가하는 '보건수업 프로젝트' 과목은 연수교사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하고 교수학습지도안을 창의적으로 작성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간호대학 소식 08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 산림치유지도사 2급 과정 개설

2015년 8월 14일, 간호대학이 주관대학으로서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과 함께 운영하는 산림치유지도사 2급 과정이 40명 정원으로 개설되었다. 산림치유지도사 2급 과정은 산림청으로부터 인증 받은 교육과정으로서, 산림과 보건 분야의 전문 교수진에 의한 이론교육과 현장실습, 그리고 명사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다.

산림치유지도사란 산림복지 실현을 위해 산림청에서 국가 자격시험을 거쳐 인증하고 관리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이번에 개설된 산림치유지도사 2급 과정은 대학과 지역이 함께하는 산림치유지도 교육을 통한 녹색일자리 창출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숲(산림자원)을 이용한 건강·치유 기초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과정은 우리대학의 이인숙 교수가 주임교수를, 방경숙 교수가 부주임교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김성재 학장, 박연환 부학장을 비롯하여 서은영, 최희승 교수가 교수진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다. 산림치유지도사 2급 과정은 오는 2015년 12월 19일 종강 예정이다.

간호대학 소식 09

제 69회 후기 학위수여식

2015년 8월 28일 제 69회 후기 학위수여식이 관악캠퍼스 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제 69회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성낙인 총장은 학위수여식사에서 "유능함과 선함을 모두 갖추고 국가와 사회에 대해 따뜻한 가슴을 가진 선한 인재가 되길 바란다."며 "스스로 좋은 삶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물이 되는 삶을 영위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위수여자를 비롯해 간호대학 학장, 부학장, 학과장과 학위 수여자의 지도교수들이 함께 참석하였으며, 간호대학에서는 학사 1명, 석사 14명, 박사 4명이 학위를 받았다.

간호대학 소식 10

2년제 간호학제 신설 반대 협의체 활동

8월 21일 복지부의 간호인력개편안을 담은 입법예고가 발표된 이후 간호계 각계각층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는 현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구성된 간호인력을 3단계(간호사-1급 간호지원사-2급 간호지원사) 체계로 개편하고 1급 간호지원사는 복지부장관 '면허', 2급 간호지원사는 복지부장관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년제 간호학제 신설 반대를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8월 25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2년제 간호 관련 학제를 신설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협의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복지부의 간호인력개편안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간호 인력의 면허기준을 완화시킴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방이나 중소병원에 간호사 부족의 근본원인은 법정 간호인력의 미충원과 열악한 근무환경 및 처우 때문임을 지적하면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법안 통과를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사를 밝혔다. 우리 간호대학에서도 김성재 학장, 조성현 학과장을 비롯한 조교 및 학생들이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하여 간호인력 개편안 반대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튿날인 8월 26일에는 협의체 주관으로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강당에서 '의료법 일부개정안의 간호인력개편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우리 간호대학의 김성재 학장, 조성현 학과장은 이날 설명회에 참석하여 입법예고된 법률안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하였다.

한편 8월 27일에는 선문대학교 간호학과 강당에서 '아산지역 간호대 학생을 위한 「비전있는 보건의료정책」' 특강 및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충남지역의 간호대학 학생들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이명수 새누리당 보건복지의원회 간사 의원의 특강과 함께 간호인력 개편 경과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우리 간호대학에서는 김성재 학장이 간담회에 참석하였으며, 간호인력개편안의 문제점 및 진행 상황에 대해 충남지역의 간호인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였다.

또한 협의체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반대의견 쓰기 및 검토의견서 제출 운동을 벌였다. 복지부 홈페이지에 개인 의견쓰기와 협의체에 가입한 130개 단체별로 단체 의견쓰리를 추진하여 무려 106,618명이 의견을 쓰고 관련 입법예고가 702,767번 조회되는 놀라운 결과가 있었다. 우리 간호대학에서도 단체 의견서, 교수 개별 의견서, 학생 의견서를 제출하여 간호인력개편안 반대에 목소리를 더하였다.

간호대학 소식 11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치유(Chi-U) 텃밭 개장식

2015년 9월 23일 간호대학 제2연구동 2층 강당에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치유(Chi-U) 텃밭 개장식이 개최되었다. 지난 3월부터 7월에 걸쳐 종로구청 공원녹지과 도시농업팀과 간호대학 강승완 교수 주관으로 간호대학 제 2연구동 옥상에 텃밭 조성 사업이 진행되어 2015년 8월에 옥상텃밭을 개장하였다. 이날 개장식에는 김영종 종로구청장을 비롯하여 서울대학교병원 오병희 원장,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성재 학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강대희 학장,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이재일 원장, 서울대학교병원 송경자 간호본부장,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인 정관스님 등 내빈들이 참석하여 텃밭 개장을 축하하였다.

옥상텃밭의 명칭은 네이밍 공모 1등 수상자인 간호대학 학부 3학년 곽은형 학생의 "Chi-U(Care healing inside of U) 텃밭"으로 결정되었으며, 개장식을 통해 네이밍 공모 시상이 이루어졌다. 이후 참석자들과 함께 옥상텃밭을 둘러보며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간호대학 옥상의 치유(Chi-U) 텃밭이 간호대학 구성원들은 물론 서울대학교병원 내원환자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치유, 소통, 나눔의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간호대학 소식 12

간호대학 환경개선

○ 본관 창틀 수리
- 일시 : 5. 15(금)~22(금)
- 공사내용 : 노후된 본관 창문 바퀴 교체 및 수리

○ 간호대 주변 가로등 추가 설치
- 일시 : 7. 16(목) ~ 30(금)
- 공사내용 : 본관 앞 잔디밭 2개, 계단 2개, 본관 뒤편 5개 등 가로등 추가설치 및 조도 개선

○ 제2연구동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
- 일시 : 8. 10(월) ~ 31(월)
- 공사내용 : 제2연구동 15실 16개 설치

○ 본관, 제2연구동 간호대학 건물 글씨 수정
- 일시 : 8. 26(수) ~ 28(금)
- 공사내용 : 본관 입구 및 벽면 2곳 간호대학 글씨 제작 부착하여 선명도 향상

○ 수정채 및 옥상정원 테라스 보수 및 휴게시설 설치
- 일시 : 7월~9월
- 공사내용 : 테라스 보수 및 도색, 옥상정자 설치로 휴게 공간 마련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1

외국인 저명학자 초청 세미나 개최

주제	일정	연자
Developing theory-based interventions	2015.6.24	Dr. Eunice Le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College of Nursing
Limitations of measurements in Nursing Research: understanding and solutions of the issues	2015.7.9.~7.10	Changi Park.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Integrative Nursing	2015.8.6.~8.8	Mary Jo Kreitzer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2

MERS 관련 포럼 개최

7월 17일(금), 간호대학 강당에서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메르스 관련 포럼을 개최하였다. '감염관리와 환간간호 개선방안' 이라는 주제를 놓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주제 강연과 패널토론이 이루어졌다.

주제	연자
메르스 환자 간호와 감염관리	김은진 (서울대학교병원 감염관리팀장)
신종 감염병 관리에서의 간호사 역할과 기여	송경자 (서울대학교병원 간호본부장)
보호자와 간병인 상주, 누가 강요하는가? 간호사 확충을 통한 전인간호 제공	조성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자가격리자를 위한 간호서비스와 공공의료 지원 체계	이인숙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강남구 보건소 방문보건센터장)
〈패널토론〉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이진수 (서울대병원 음압병동 간호사) 이에스더 (중앙일보 기자)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김 윤 (서울의대 교수)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3

간호과학연구소 학술대회 개최

9월 17일 '사회적 상처의 치유와 간호'를 주제로 연구소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교내외 인사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사회적 상처의 치유, 간호의 역할 등에 대한 학문적 담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주제	연자
사회적 상처와 간호	서은영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사회학에서 바라본 현대인의 사회적 상처와 치유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페미니즘에서 바라본 여성의 사회적 상처와 치유	배은경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사회안전과 간호	배정이 (인제대 간호학과 교수)
영유아 건강을 위한 사회적 지지와 간호	전경자 (순천향대 간호학과 교수)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지원	우경래 (해바라기센터)
전체토의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4

하반기 행사안내

1. 2015년 하반기 수요학술세미나

지난 9월 9일에 2학기 첫 수요세미나를 시작으로, 다음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학술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제	일정	연자
마음극장	9월 9일	주혜주 (경인여자대학교 교수)
마음을 만지는 비폭력대화 3	10월 7일	이윤정 (한국비폭력대화센터 부대표)
마음을 만지는 비폭력대화 4	10월 14일	이윤정 (한국비폭력대화센터 부대표)
도시에서 죽는다는 것	11월 11일	김형숙 (책 저자,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동문)
문학속 간호이야기	11월 25일	황효숙 (서울여자간호대학 초빙교수)

2. 겸무연구원 연구동향 세미나

겸무연구원(간호대학 교수)의 최근 연구내용을 소개함으로써, 간호대학 교수는 물론 재학생들의 연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기획되었다.

주제	일정	연자
웰니스 휴먼케어 사업단 「생체신호 분석을 이용한 멘탈 웰니스 정량화 모델 개발」	9월 23일	강승완 교수
Imagine – The Future of Aging: Challenges and Opportunties for Gerontological Nursing	10월 21일	탁성희 교수
Patient safety competency and education	10월 28일	이남주 교수

3. 교수학습개발센터 · 간호과학연구소 공동 주관 통계특강

10월 30일(금), 오후 1시~5시까지 교수학습개발센터와 간호과학연구소가 공동 주관하는, 대학원생 대상의 통계 특강(SPSS기초)이 제2 연구동 컴퓨터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4. 대학원생 학술모임 발표회

대학원생 학술모임 지원 사업에서 선정된 5개의 학술팀 결과발표회가 11월 18일(수) 오후 12시에 간호대학 본관 502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학부 소식 01

2015학년도 학생회 활동

1. NMP(간호대 멘토링 프로그램)

2013년부터 시행된 NMP는 선배와 후배가 한 조를 이루어 한 학기 동안 이루어지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작년 우수한 사업으로 선정된 2014년의 NMP 시스템을 이어 받아 페이스북 페이지를 이용하여, 다른 학우들이 자신의 멘토링을 보고 피드백을 할 수 있어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 멘토링 팀 중 우수한 팀 3팀은 5만원 상당의 상금으로 멘토&멘티 식사비가 지원되었다. 우수팀은 김예린, 이세라 조(1등), 이찬희, 전혜빈, 허다니 조(2등), 황욱상, 천미랑 조(3등)이다.

2. 스터디 사업

2015학년도 1학기 스터디 프로그램은 각 스터디 그룹 내에서 서로의 공부를 도와 서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험 기간 이전에 일정 공부시간을 달성한 조에는 공부 독려를 위한 간식이 지급되어 사기를 키웠다. 또한 기말고사까지의 학습 시간을 합산하여 가장 많은 시간 공부를 한 조에게는 10만원 상당의 상금이 지급되었다. 1등을 차지한 조는 도레미파솔라시 조(윤하은, 손미지, 김소정)이다.

3. 시험기간 간식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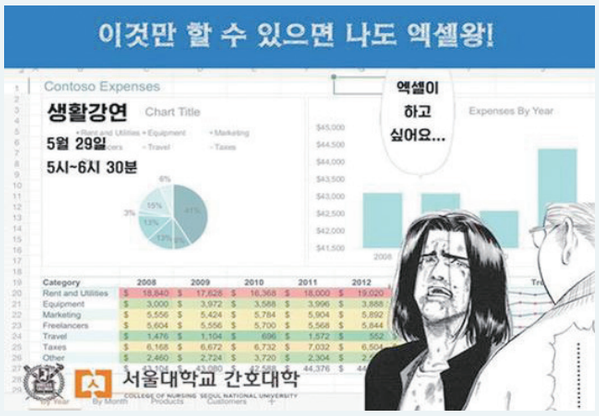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학생들의 학습 독려를 위해서 간식을 지급하였다. 중간고사에는 밥버거(주먹밥)와 콜라를 지급하였고, 기말고사에는 갈비만두를 지급하였다.

4. 2015학년도 연건대동제

2015학년도 연건 대동제가 5월 15일 연건캠퍼스에서 개최되었다. 연건 대동제는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에 있는 대학인, 간호대학과 의과대학 그리고 치의과대학원이 함께 만드는 축제로 환자들과 함께하는 축제를 지향하고 있다.

5. 엑셀 생활강연

5월 29일 엑셀 만들기를 주제로 생활강연이 열렸다. 생활강연은 간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소에 특강을 받고 싶었던 주제에 대해서 강연을 받는 활동으로 올해에는 엑셀 만들기가 그 주제로 채택되었다.



6. 밤샘영화제

5월 29일 간호대학 함춘학생생활관에서 밤샘영화제가 열렸다. 밤샘영화제는 오후 7시부터 시작하여 다음날 새벽까지 함춘학생생활관에 모여 영화를 관람하는 행사이다. 학업에 지친 학우들에게 쉬어가는 시간이 됨과 동시에 이색적이고 모두가 함께 즐기는 영화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영화를 보며 먹을 간식(치킨, 팝콘)도 준비되었으며, 행사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학생에게는 CGV 영화관람권을 2장 증정하는 이벤트도 마련하였다.

7. 총운동회 및 총개강파티

8월 31일 여름 방학의 마지막을 앞두고 간호대학 학생들의 친목도모를 위한 총운동회와 총개강파티가 열렸다. 총운동회의 슬로건은 '쌈박하게 끝내고 빨리 먹자' 로 이제까지 1시에 만나 5시까지 장기간 펼쳐졌던 운동회의 시간을 대폭 감소시켜, 지루함을 없애고 더 속도감 있게 운동회를 운영하였다. 운동회의 종목은 미션달리기와 미션 임파서블 그리고 발야구 3종목으로 미션달리기는 코끼리코 돌아 신발 던져 받기, 주어진 탈것으로 달리기, 탄산음료 원샷 후 달리기로 이루어졌다. 미션 임파서블은 세로와 가로에서 오는 줄을 피하는 게임으로 학우들에게 동심을 안겨주었다. 마지막으로 발야구는 운동회에서 정말 운동다운 운동회를 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종목으로 치열한 접전 끝에 마무리되었다. 학장님과 부학장님, 학과장님의 개회사와 함께 진행된 운동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운동회 이후에는 벌집삼겹살에서 저녁식사와 동시에 다가오는 개강을 맞이하는 개강파티가 진행되었다. 운동회에 참가하지 못한 학생들과 선배들 모두 즐길 수 있는 자리였다.

학부 소식 02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간호대학생 연구발표회 개최

2015년 5월 28일 간호대학 제2연구동 강당에서 학부생들의 연구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연구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연구발표회가 개최되었다. 3학년 2학기에서 4학년 1학기에 걸쳐 '간호연구실습' 교과목을 통해 시행된 연구결과를 각 팀별로 발표하고 이를 평가하여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연환 간호대부학장과 김혜원 간호과학연구소장의 인사말로 연구발표회가 시작되었고 김정은 교과 담당교수와 박연환 부학장, 조성현 학과장이 논문발표의 심사위원을 맡았다. 연구발표회 결과, 최우수상에는 '20대 흡연자의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여부와 관련된 요인-서울시를 중심으로(배은하 외)' 가 선정되었고, 우수상으로는 '입원아동보호자의 병원 내 환경적 요인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수면의 질의 관계-S병원 어린이병원을 중심으로(이슬 외)', '간호학과로의 진학 희망 정도와 간호사 이미지에 관한 연구(이하영 외)' 가 선정되었다.

학부 소식 03

동아리 탐방 : 송촌 (의대 간호대 연합 봉사동아리)

안녕하세요, 저는 12학번 김세주입니다. 저는 이번 뉴스레터를 통해 서울대 의대 간호대 연합 봉사동아리 '송촌 의료봉사회' 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송촌은 1974년 7월 4일에 만들어진 이래로 4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 있는 동아리입니다. 동아리의 이름은 서울대학교 병원의 기원이 되는 '제중원' 의 원장이셨고, 한국의 히포크라테스라 불리는 송촌 지석영 선생님의 호를 딴 것입니다.

지금은 각 시, 군, 구 마다 보건소가 있어 의료서비스를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의료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기 전인

1970년대에는 가난한 사람은 감기와 같은 아주 간단한 질병에 걸렸다하더라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오랫동안 병을 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송촌은 이러한 의료혜택의 격차를 해소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의료의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자 했습니다. 송촌은 지역사회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대부분의 봉사 동아리가 복지관에서 활동을 진행하는 것과는 달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거주지를 직접 찾아다니며 의료의 손길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송촌 활동은 크게 주말진료와 계절진료로 나뉩니다. 주말진료는 학기 중에 한 달에 2회 정도 토요일 오후에 종로구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자택을 방문하는 활동입니다. 어르신들의 혈압, 혈당을 측정하고 간단한 문진을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생활상태도 함께 파악합니다. 방문 후에는 현재 어르신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는지를 토의한 후 다음 번 봉사 시에 반영합니다.

계절진료는 여름,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약 일주일 간 진행됩니다.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이나 이주 노동자 주거 지역 등을 방문하여 일손 돕기와 함께 가정방문을 통한 마을 주민의 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 또한 지역 사회 건강 증진을 위해 별도의 조사나 검사를 하며, 학생이 주관이 되어 진료소를 운영합니다. 진료소에는 의료인 면허를 가진 송촌 선배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운영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무료 처방을 해드립니다.

직접적인 봉사활동 외에도 가정방문에서 나눠드릴 건강 관련 교육자료 제작, 의료 지식에 대한 학술 세미나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봉사 외적인 활동으로는 개강총회, 스승의 날 행사, 신입생 환영회, 종강총회, 졸업생 환송회, MT, 10주기 행사, 시험 격려 간식행사 등이 있어 돈독한 선후배간의 우정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의료봉사동아리라고 해서 의료적인 지식이 없으면 어울리기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송촌인들의 따뜻한 마음과 끈끈한 유대감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기에 누구든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송촌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의대, 간호대 선후배들과 가족 같은 훈훈한 정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학부 소식 04

학생이야기 2015학년도 Young Nightingale Camp 멘토 참여 수기 – ①

간호학과 15학번 임정현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학과 15학번 임정현입니다. 지난 7월 23일 조금은 덥고 습했던 날, Young Nightingale Camp 멘토로 참여했습니다. 2014년에는 간호학도를 꿈꾸는 고등학생으로서 간호학 캠프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멘티로 참여했을 때는 연건 캠퍼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멘토 언니 뒤만 졸졸 따라 다녔는데, 이제는 제가 학생들을 이끌게 되니 작년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첫 활동순서였던 조별활동 시간에 저는 3, 4조와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몹시 어색했는데, 한 명씩 이야기를 하다 보니 간호사와 간호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술술 이야기하게 되었고 저 뿐만 아니라 멘티 학생들도 간호학과라는 진로에 대한 확신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를 왜 무시하는지 모르겠다던 한 멘티 학생의 말이 기억나는데, 이미 그 생각만으로도 간호사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새롭게 만들어진 이 조별활동은 체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여서 간호학과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좋은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샤인 센터에서 심폐소생술, 활력징후, 분만 과정 등을 실습했는데 작년에도 경험했던 활동이어서 복습하는 기분으로 실습을 지

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두 번째 보아도 분만 과정은 늘 새롭고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더불어 모든 활동을 신기해하며 실습하는 조원들을 보며 왠지 모르게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활동인 간호대학 투어 시간에는 연건캠퍼스를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샤인센터, 기숙사와 간호학 박물관 등 각종 간호대학의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멘티 학생들뿐만 아니라 내년이면 연건 캠퍼스에서 생활하게 될 저에게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전공 수업을 많이 듣지 않은 1학년이기에 아직은 간호학이라는 학문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하지만 이번 Young Nightingale Camp를 통해 좀 더 진지하게 간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을 격려해주고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지만, 제가 작년에 가졌던 의문들이나 대학에 진학한 후 알게 된 점, 학생들이 궁금한 점 등을 중심으로 답해줄 수 있어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저의 멘티 학생들과도 계속 연락을 하며 도움이 필요할 때 조언해 줄 수 있게 되어 무척 좋았습니다. Young Nightingale Camp가 앞으로 더욱 더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고, 진로를 고민하는 고등학생들에게 간호학이란 무엇인지 엿볼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풍성하게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도 멘토로 활동하여 새로운 후배들과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학부 소식 04

학생이야기 2015학년도 Young Nightingale Camp 멘토 참여 수기 – ②

간호학과 15학번 심상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Young Nightingale Camp에서 5조 조장으로 활동했던 간호학과 15학번 심상솔입니다.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멘토링을 진행하게 되어서 많은 걱정도 하고, 또한 제가 작년에 멘티로 활동했던 캠프에 멘토로 참가하게 되어서 많이 설레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1학년이라 들은 전공과목이 하나 밖에 없었고, 또한 연건 캠퍼스가 아닌 관악 캠퍼스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간호학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멘토링을 진행할 수 있을까 많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역시나 처음에는 저희 조원들과 친해지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전 일정과 또한 같이 맛있는 점심식사를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며 점차 서먹한 분위기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후의 일정도 매우 즐겁게 진행되었고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활동은 오전 일정에 포함되었던 간호비전탐구 활동이었습니다. 이 활동에서는 고등학생 참가자들이 간호하면 떠오르는 단어나 이미지들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간호 관련 동영상을 시청한 후, 간호에 대해 새롭게 깨달았거나 바뀌게 된 생각이나 이미지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동영상 전후로 바뀌는 참가자들의 생각을 보며 매우 뿌듯했습니다. 물론 제가 활동을 준비한 것은 아니었지만, 간호에 대한 인식을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활동에서 시청했던 동영상에서 보이는 간호사의 모습을 보고도 저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전공과목에서 배웠던 포괄적인 개념들을 실제 간호현장에서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간호사의 역할이나 업무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등학생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더욱 즐겁게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캠프 활동을 마치면서 전 뿌듯함과 아쉬움이 동시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작년에 멘티로 왔었던 간호대학 본관에서 올해에는 간호학과 학생이 되고자 희망하는 고등학생들에게 멘토링을 했다는 사실이 매우 감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1학년인지라 간호학에 대해 많이 아는 것이 없어 고등학생들이 물어봐도 잘 대답해주지 못했던 점, 그리고 간호학에 대해 더 많이 알려주지 못했던 것에 대해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간호학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공부해서 내년에는 선배님들처럼 좋은 멘토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원 소식 01

2014학년도 후기 학위취득자 논문 목록

간호학 석사(14명)

김소현	종합병원 간호사의 치매노인케어관련 지식과 인간중심접근법에 대한 인식
김주희	한국 여성의 임신과 출산 – Focused ethnography를 적용한 세대 간 경험 분석
김형경	미혼 임부의 모-태아 애착 영향요인
김효정	아동 간호사의 치료적 놀이에 대한 인식 및 수행정도
박선영	건강검진을 받은 암 생존자와 일반검진자의 신체적 건강상태, 신체활동과 스트레스
박유진	수술 전 암환자의 불확실성과 사회적 지지 및 불안과의 상관관계 연구
배지혜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진행성 암환자의 지지적 간호 요구와 가족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설은미	중환자 간호사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신정욱	보험회사 심사자의 직무 관련 스트레스
유혜리	아동 통증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 및 자기 효능감과 간호 수행도의 관계
이성은	취약계층 노인의 걷기실천과 건강관련 삶의 질(EQ-5D)의 성별비교
임지희	다제내성균 감염관리 교육이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의 감염관리에 미치는 영향
조혜령	전문간호사가 제공하는 교육·상담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고혈압 노인의 자기간호 행위, 복약순응도, 혈압에 미치는 효과
황지혜	중증 선천성심장병 아동 아버지의 부성경험

간호학 박사(4명)

김은혜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이직 비용 추정
권은진	유방암 환자 배우자를 위한 모바일 기반 정보적지지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이현정	전정기능저하 어지럼 환자를 위한 자기효능증진 전정재활 운동교육의 효과
정우정	뇌전증 자녀를 둔 어머니의 돌봄 체험에 관한 현상학 연구

대학원 소식 02

2015학년도 대학원생 워크숍 및 글쓰기 특강

2015년 5월 7일 목요일 13시부터 16시까지 간호대학 제 2연구동에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원생 자치위원회와 간호과학연구소가 마련한 대학원생 워크숍 및 글쓰기 특강이 열렸다. 김성재 학장의 인사말로 시작한 이번 행사에서는 박연환 부학장의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 안내' 와 학생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대학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간호대학의 각 연구실별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와 구성원에 대해 소개하고 교실별 특색과 연구진행상황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이후 대학원생들에게 필수적인 '글쓰기 윤리' 를 주제로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 교실 박정희 연구교수가 특강을 진행하여 대학원생들의 논문 작성능력을 향상시키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대학원 소식 03

대학원 자치회 소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는 대학원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고 의견을 대변하는 기구로 '대학원 자치회' 가 있다. 2015년 현재 대학원 자치회는 자치회장 김다은, 자치부회장 윤효정 학생을 대표로 하여 총 19명의 강의연구지원장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원 자치회는 매년 대학원생 워크숍 주최, 학술대회 단체 등록, 휴게실 사물함 관리 등 대학원생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매달 1회 이상의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대학원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2015년 1학기에는 학생들의 의견 반영과 학장님, 부학장님 및 행정실의 협조를 통해 간호대학 제 2연구동 쪽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청소도구를 재정비 했다. 이는 늦은 시간까지 연구에 열중하는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와 쾌적한 연구실 환경 유지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 외에도 대학원자치회에서는 온라인 다음카페 'SNUNSG 대학원생활' 을 통해 대학원생들의 정보나눔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http://cafe.daum.net/snunsggrad) 이 카페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요한 공지사항을 게시하고, 대학원 생활에서의 불편 사항이나 고민사항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학원 자치회는 앞으로도 대학원생들의 알찬 대학원 생활을 위해 학생들과 소통하는 기구로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대학원 소식 04

대학원생 이야기 – ①

간호과학연구소 지원 학술모임: 아동간호세미나

송민경 (아동박사과정 대학원생)

대학원 교과목 수강 이외에도 아동간호학 교실 내에서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함께 탐구하고 논의하는 학술모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던 중 2015년 3월 간호과학연구소에서 대학원생 학술모임을 지원해 준다는 공고가 났다. 우리 아동 전공 대학원생들에게 너무도 좋은 기회였기에 망설임 없이 신청하고, 또 운 좋게 선정이 되어 대학원생들끼리 정기적인 세미나를 진행하는 학술모임을 운영하게 되었다.

'아동간호세미나' 학술모임은 방경숙 교수님 지도학생인 유주연, 송민경, 이부현, 박지윤, 박세은과 채선미 교수님 지도학생인 김초희, 황지혜 총 7명의 대학원생이 참여하고 있다.

학술모임의 첫 번째 주제는 체계적 문헌고찰로, 지난 1월 간호과학연구소 겨울방학 특강으로 진행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방법론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아버지 대상 간호중재' 와 '국외 아동호스피스 중재연구의 효과' 라는 두 가지 관심 내용을 선정하였고, 1~2주마다 점심시간에 만나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의 연구방법에 관련된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다. 좀 더 체계적 문헌고찰에 대해 잘 이해하기 위해 교내외에서 진행되는 관련 강의도 수강하며, 함께 공부하다 보니 막연하게 느껴졌던 체계적 문헌고찰의 실체가 조금씩 잡히는 듯하다. 현재 각 주제에 대한 PICO(Patients, Intervention, Comparators, Outcomes)를 구성, DB를 선정하여 문헌을 선택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 바쁜 시간 중에도 두 분 교수님께서 스터디 진행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있다.

이론적으로 배우기만 했던 연구방법론을 직접 활용하여 적용해보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며, 서로 배워가는 스터디 모임을 통해 고락을 함께하며 대학원생끼리도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는 것 같다.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무엇인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간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그것이 타의에 의한 배움이든, 자의에 의한 배움이든 그 즐거움은 무엇에 비길 데 없이 크다. 여러분들도 학문하는 즐거움의 기회를 가지시길. "배우고 때로 익히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즐거움과 더불어 노력하는 시간만큼 학술지 게재라는 가시적인 성과도 얻게 되기를 기대한다.

대학원 소식 04

대학원생 이야기 – ②

메르스와 함께 했던 뜨거웠던 여름을 보내며…

김은진 (서울대학교병원 감염관리팀장, 간호대학 박사과정)

2015년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메르스 사태가 선선한 가을 바람과 함께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의 기억으로부터 점점 잊혀져 가는 듯하다. 지난 5월 20일부터 약 2달 동안 대한민국을 휩쓸고 지나간 '메르스(MERS-CoV, 중동호흡기증후군)' 은 온 국민을 공포와 불안 속에 떨게 하였으며, 국가의 사회경제 기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메르스는 무방비 상태에서 우리에게 찾아왔으며, 현재까지 총 186명의 확진자, 사망자 36명, 20%에 가까운 치명률을 기록하고 있다. 마지막 환자 발생일인 7월 4일 이후 현재까지 더 이상의 확진자는 없으며, 격리대상자 16,693명이 7월 27일자로 모두 격리 해제되었으니, 사실상의 종식을 이미 맞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는 음압병상에서 격리를 유지 중인 마지막 1명의 환자가 최종 음성판정을 받는 시점으로부터 28일이 경과된 후에야 공식적인 메르스 종식을 선언할 계획이다.

서울대학교병원은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작년부터 아프리카에 에볼라 유행발생에 대비하고, 필요 시 파견 의료진에 대한 증상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실제 발생은 없었지만 팀을 꾸려 동선 및 환자 입원 시나리오에 따른 실제 모의 훈련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에 급작스러운 메르스 사태의 발생에도 어느 정도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국내 발생과 동시에 메르스 TFT를 즉각적으로 구성 가동하고, 환자 입원에 대비하였다.

그러나 메르스는 우리가 생각해왔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순식간에 병원들로 전파되기 시작하였고, 생각보다 파장이 컸다. 드디어 5월 28일 첫 의심환자가 입원하게 되면서 이전의 모의 훈련 상황이 실제 상황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모의 훈련 시 생각하지 못했던 세세한 부분에서의 문제들이 여기저기에서 드러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며 점차 안정되기 시작하였다. 현장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매주 1-2회 개최된 TFT회의를 통해서 주요한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실시간으로 단체카톡방을 활용하여 의견들을 주고받으며 외부 상황의 변화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우리 병원은 타병원으로부터 의뢰된 확진 환자의 진료, 특히 중증 확진 환자의 치료에 전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일반 병동의 환자들이 치료받고, 수많은 외래 환자들이 진료받는 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메르스의 유입 및 병원 내에서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였고, 선별진료소를 마련하고, 모든 방문환자의 메르스 노출 위험요인을 스크리닝하였으며, 폐렴으로 입원하는 환자는 응급중환자실과 응급병동에 격리하여 메르스가 배제된 후에 일반병실로 전동되도록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이 과정에서 확진 환자의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진의 안전을 최우선의 과제로 두고, 이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모든 의료진의 보호구 착탈의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고, 발열과 호흡기증상을 모니터링하면서 경미한 의심증상까지도 초기에 적절히 대처하였다. 새벽에 열이 나는 직원의 전화를 받고, 아침까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 날 아침 검사를 시행한 후 조마조마한 마음을 붙들고 있다가 오후에 검사결과가 음성임을 확인하고는 겨우 한숨을 돌렸던 기억이 난다. 가끔 열이 나는 직원이 있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는 했다. 모두들 검사에서 음성이었고, 다행히 아직까지 단 한 명의 의료진 노출도 없이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우리병원에서 치료받은 확진 환자 10명 중 3명은 인공호흡기와 에크모(ECMO) 치료를 받았을 정도로 상태가 위중하였으나, 다행히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다. 중환자 치료를 위해서 감염내과, 중환자 진료부, 호흡기 내과, 신장내과, 흉부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과의 협진이 필요하였고, 모두들 한 팀이 되어 환자 치료에 힘을 쏟았다. 격리 병동은 힘든 상황이었지만 서로를 격려해가면서 동료애를 가지고 함께 하였다. 중환자 진료를 위해서는 PAPR이라는 전동식 양압 호흡기구를 차고 들어가는데, 보통 한번 격리실에 들어가면 4시간까지도 나오기가 어려웠고, 땀에 흠뻑 젖은 채로 나오는 의료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난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메르스에 감염되었다는 스트레스와 격리로 인한 불안감을 가지고 힘들게 치료받는 환자들의 손을 직접 잡아주고 옆에서 지지해주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모든 primary care를 담당했던 간호사들을 보면서, 나는 진정한 간호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에 임하도록 숙식을 신속하게 해결해 준 병원 측의 지원과 간호본부, 응급의료센터 및 여러 부서의 협조와 도움으로 순조롭게 메르스를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에 너무나도 감사하다. 무엇보다 매일 의료진의 증상을 확인하고, 의료진의 개인보호구 착탈의 교육을 시행하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며 밤낮으로 열심히 뛰어준 우리 감

염관리팀 팀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

메르스 사태는 우리나라 의료계에 수많은 교훈과 과제를 남겼고, 간호계에도 여러 가지 과제를 던져 주었다. 우리 나라의 병원 환경 상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는 경우가 많아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유행시 감염 전파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후진적인 간병 제도와 관련하여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포괄간호서비스는 간호사의 배치수준을 높여 직접 간호를 늘림으로써 의료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간병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며, 아울러 전문적 지식을 갖춘 간호사가 환자를 돌봄으로써 감염전파의 연결 고리를 끊을 수 있어 병원 내 감염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포괄간호서비스가 정착되기 위해서 앞으로 간호인력이 충분히 확보되고, 예산이나 수가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간호계의 확고한 의지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에겐 아직 메르스가 끝이 나지 않았다. 서늘한 바람과 함께 서서히 뜨거웠던 한 여름의 기억이 가물가물 해지는 순간, 끝이 날지도 모르겠다. 마지막 환자가 무사히 퇴원하는 그날까지 단 한 명의 의료진도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학원 소식 05

연구지원금 및 학술상 수여 명단

본교 대학원생 중 연구결과 및 연구계획서를 발표하여 연구비 지원 혹은 학술상을 받은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원금	수여자	전공
서울간호학술상(우수상)	조혜령	성인 석사졸업
서울간호학술상(장려상)	김소현	성인 석사졸업
서울간호학술상(포스터상)	이선미	성인 석사졸업
보건장학회 지원금	이현정	성인 박사졸업
시그마학회 지원금	이수진	성인 박사수료
서울특별시간호사회 한마음장학금	조혜령	성인 석사졸업

대학원 소식 06

졸업생 교수임용 현황

본교 대학원 졸업생 중 2015년 4월 이후 교수로 임용된 졸업생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임용 대학	임용 대상자	전공
부천대학교	권은진	정신간호학
중앙대학교	안정원	성인간호학
경상대학교	장희경	성인간호학

대학원 소식 07

국제학술대회 참석명단

본교 대학원생들이 2015년 4월 이후 참여한 국제학술대회 현황은 다음과 같다.

학술대회명	일시	참석자	전공
ICN Conference and CNR, Seoul. 6.20 논문발표: 'Use of Health Avatars for Managing Chronic Diseases: A Tale of Three Studies' (발표자: 박현애 교수)	2015. 6. 20	강한나 전은주	정보 석사과정 정보 박사과정
The Asian Symposium on Health Informatics and Nursing Education 포스터 발표: 'Physical activity and stages of change for weight control among Korean adolescents: A preliminary study'	2015. 8. 6. ~ 8. 8.	김초희	아동 석박통합
MEDINFO 2015, São Paulo, Brazil 포스터 발표: 'Development of an Adolescents' depression ontology for analyzing a social media' (발표자: 정혜실) 논문 발표: 'Web-based self-management support interventions for cancer survivor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es' (발표자: 박현애 교수)	2015. 9. 19 ~ 9. 23	정혜실 김애란	정보 석사과정 정보 박사과정

동창회 소식 01

2015년 동창회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식

2015년 4월 15일 간호대학 강당에서 동문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식을 개최하였다. 1부 행사로 주혜주(77졸) 동문의 흥겨운 사회로 동문들이 준비한 작은 음악회가 있었다. 임영숙(70졸) 동문의 독창, 김선희(83졸) 동문의 바이올린 연주, 윤계숙(77졸) 동문의 피아노트리오와 75년 졸업동문의 중창이 이어졌다.

2부에서는 양광희 동창회장의 개회사와 김성재 학장의 축사에 이어 지난해에 동창회 장학기금을 기부해 주신 백월랑(63졸) 동문, 임영숙(70졸) 동문, 이선옥(73졸) 동문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이날 참석은 못했지만 미주에 거주하는 김현희(63졸) 동문은 올해 3천만원을 추가로 기부하여 동창회에 총 8천만원을 기부했음을 알리고 감사를 표시했다. 이어진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동문들이 출연한 기금으로 13명의 학생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하였으며, 동창회장상 수여와 신입회원 환영식이 진행되었다.

3부 행사에서는 동창회 사업과 교육연구재단 사업을 계획하고, 예·결산 심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후 임원 선임 순서를 통해 양광희 회장을 재신임하고 부회장단을 선임하였다.

양광희 회장은 "많은 동문들께서 재능, 시간, 물질로 동창회에 참여해 주셔서 지난 2년 임기를 즐겁게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의 2년 역시 동문들의 힘을 받아 최선을 다해 일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동창회 소식 02

2015년 동창회 '대표자의 날' 행사

7월 21일 금요일 오후 4시 30분 간호대학 본관 102호 강의실에서 동창회 이사, 기대표, 지부대표, 단체대표 등 50여명의 동문이 모여 동창회 '대표자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모임은 선후배, 지역 간의 소통과 교류를 이어 가고자 자리를 마련하였다.

서은영 상임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양광희 동창회장의 인사와 김성재 학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장학기금과 연구비를 기부해주신 이윤경(69졸) 동문, 김영숙(79졸) 동문에 대한 소개와 감사인사가 있었다.

이어서 주혜주 동문(77졸)의 '행복한 나, 더 행복한 우리' 라는 감동적인 특강이 있었다. 이후 대표자 각자의 소개와 발언이 있었으며, 모교 수정채 건물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선후배간의 친목을 다지고 동창회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동창회 소식 03

2015학년도 2학기 동창회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 내역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동창회에서는 2015학년도 2학기 동창회 장학금 및 연구비 710만원을 모교 재학생 3명과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5명, 졸업생 1명(총 9명)에게 지급하였다. 수혜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장학금명	학 년	성 명	금 액
동창회 장학금	박사	홍경진	100만원
최애옥(50졸)장학금	박사	여지영	100만원
이윤경(69졸)장학금	박사	김혜숙	60만원
김현희(63졸)장학금	석박	최미진	50만원
김기주(70졸)장학금	석박	정예슬	50만원
양광희(72졸)장학금	1	전은비	100만원
양광희(72졸)장학금	2	조영은	100만원
양광희(72졸)장학금	3	윤경진	50만원
김영숙(79졸)연구비	2002졸	김미영	100만원

동창회 소식 04

2015년 간호대학 졸업 30, 40, 50, 60주년 기념 모교방문행사

오는 10월 8일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와 간호대학 강당에서 간호대학 졸업 30, 40, 50, 60주년 기념 모교방문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동문 약 7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동문들은 관악 캠퍼스 내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사무소를 방문하여 발전기금을 전달하고, 서울대 박물관을 비롯한 캠퍼스 내 주요시설을 둘러볼 예정이다. 또한 이번 행사는 기별 대표들을 중심으로 30, 40, 50주년 동문의 공연과 학교생활 영상 상영 등 동문들이 참여하는 행사들과 간호대학 학부생들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서울대 간호인들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되리라 기대한다.

간호대학 발전기금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간 : 2015년 3월 1일~2015년 8월 31일

학사동문 및 간호대학 교수			
강신자(1963)	강현주(2002)	김금순(1972)	김성재(1981)
김영아(1988)	박달이(1978)	박영임(1977)	박정윤(1994)
서경산(2001)	이남주	이윤경(1969)	정선아(2015)*
정현명(1992)	조동란(1970)	조성현(1993)	채선미
최애옥(1950)	최희승	황보영(1996)	

*대학원 동문

교직원
한경희

기타
한국학술정보(주)

발전기금 안내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발전기금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생들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국제학술 교류 활동 및 연구시설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발전기금 참여방법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무통장 입금, 자동이체, 신용카드, CMS 등을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신청서는 간호대학 홈페이지 또는 간호대학 담당자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

농협 079-17-065324 서울대발전기금(간호대학)
신한 100-023-643537 서울대발전기금(간호대학)

문의처 : 02-740-8802

* 유증 및 부동산 등 기타 현물자산 기부를 희망하실 경우, 담당자가 상담해 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발전기금을 위한 출연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